

# Derrida의 deconstruction을 기반으로 한 kinetic typography의 의미전달에 대한 연구

## The language of kinetic typography based on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정혜욱

청강문화산업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과

Chung, Hye-Uk

Dept. of Multimedia Design,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 Key words: Deconstruction, difference, openness of meaning

### 1. 서론

#### 연구목적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는 최근의 시각문화는 물론 학문적 연구에까지도 깊게 연루되어, 특히 현상과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마련했다.<sup>1)</sup> 건축, 가구, 제품 디자인, 패션 및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모더니즘과 구조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반발로 시각적 분열과 유희 등으로 해석되어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크랜브룩 아카데미(Cranbrook Academy of Art)에서의 실험적 시도에서 해체주의를 기반을 한 새로운 디자인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체주의적 이론을 하나의 시대적 양식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디자인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 또는 태도(attitude)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은 사실은 해체주의 이론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적 이즘이라고 이해하기에 앞서, 디자인 분야에서 의미전달 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점을 찾는 데 좋은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논문은 데리다의 해체이론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본 후, 특히 데리다의 텍스트중심주의와 차연(difference)의 이론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kinetic typography)에 적용시켰을 때 창조될 수 있는 의미의 다양성(openness of meaning)과 수용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의 창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이성중심주의 (Logocentrism)

구조주의 안에서는 기호학이 '과학'으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sup>3)</sup> 과학이나 언어의 문법과 같은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며, 구조주의자들은 그러한 체계적인 지식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서 후기구조주의는 그러한 작업이 텍스트 자체의 작업에 의해 전복되는 작업을 조사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지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sup>4)</sup>

데리다는 그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전통적인 철학적 대립구조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치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지배하는 격렬한 계급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특정한 순간에 그러한 계급구조를 역전시키는 것이다"<sup>5)</sup>라고 주장하며, 플라토(Plato)이후의 서양철학이 추구해왔던 철저한 이분법, 특히 말하기(speech)와 글쓰기(writing)에 대한 반격을 가한다. 말하기는 내적 심상의 표현으로 자연적이며 고유의 성격을 지

니는 반면, 글쓰기는 단지 말하는 것을 글로 옮겨 적는 것, 말하기의 복제일 뿐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든가<sup>6)</sup> 것이 전통적인 서양철학에서의 주장이다. 즉,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의 철학이다. 이성중심주의 철학은 시각전달 매체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온 소쉬르의 기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를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글쓰기를 파생적인 제2의 위치로 추방한다.<sup>7)</sup> 소쉬르에 의하면, 기표는 기의에 접근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달하려는 개념이나 의미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며, 하나의 기호를 다른 기호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의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의가 바로 출발점이 된다. 이에 반해 데리다는 현실/재현, 내면세계/외적세계, 정신/육체 등과 같이 서양철학이 주장해왔던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불합리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글쓰기를 정신적인 사고와 지식에 대한 기표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의 기표를 가진 생명력 있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만약, 글쓰기가 말하기의 단순복제라면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또한 디자이너의 주장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복제일 뿐이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디자인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서체의 선택이나 크기, 배열, 자간, 행간, 문단의 구성 등에 따라 디자이너의 메시지 전달이 달라지는 예술 형태이다.

#### 2-2. 해체와 타이포그래피(Deconstruction & typography)

1970년대 초반의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정보전달 디자인은 엄격한 스위스 스타일의 전통을 따른 미니멀리즘적인 시각언어들이 등장하는 반면, 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제한된 언어사용과 규칙에 대한 의문점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의도적인 반발이 생겨난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모더니즘의 규율에 반해 복잡성, 시각문법상의 유희, 반어적 표현, 일상적 표현의 도입 등 의도적인 분열과 시각적 분해가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발적인 표현양식은 형식적인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모더니즘에 대한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이다.<sup>8)</sup> 즉, 해체는 그러한 구조주의 안에서 구조주의를 비판하며,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논리이다.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새로운 태도에 대하여 그들은 '그래픽 디자인 작업과 그것을 수용하는자들 상호간의 의미구축'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sup>9)</sup> 그렇다면 모더니즘이나 구조주의 문학에서는 의미강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방법에 대한 문제는 모더니즘에서도 주된 관심사이다. 하지만 엄격하고 강한 문법이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의미표출을 위한 자연스러운 발상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해체주의이론을 받아들인 작품에서 발견되는 시각 언어들의 특징은 1)새롭고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 전달방법을

1) Ellen Lupton & Abbott Miller: Design writing research, Phaidon, 1999, p3

2) Ellen Lupton & Abbott Miller : Design writing research, Phaidon, 1999,p8

3)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Cornell University, 1982

4) 조너던 컬러: 해체비평, 이만식 역, 현대미술사, 1998

5) Jacques Derrida, Positions, pp56-57

6) Ellen Lupton & Abbott Miller, Design writing research, Phaidon, 1999, p4

7)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Cornell University, 1982

8) Cranbrook design: the new discourse, Rizzoli, 1990

9) Cranbrook design: the new discourse, Rizzoli, 1990

모색하며 2)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상호간의 적극적인 의미작용의 생성을 목표로 한다. 이미지나 심볼을 언어의 단어(word)처럼 사용하여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가 이루어진다. 즉, 데리다가 주장하고 있는 텍스트 중심주의가 시각디자인 분야에 적용된다. 타이포그래피 자체가 의미전달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메시지와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표현 사이에서 독자들은 그들의 상상력과 이해도에 따라 일방적인 습득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글 읽기, 또는 시각 디자인 읽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체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엄격한 시각문법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시각구조를 창조하면서 의미전달 방법을 이루어낸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이전의 규칙들을 일탈하면서 디자인이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시도한다.

### 2-3. 차연(Difference)과 다중적 의미

소쉬르의 기호학은 이미 형성된 언어의 체계나 사회체제 안에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소쉬르의 시각에서는 사인 자체에는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 환경에 의하여 그 사인의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호학은 언어와 사회 규범적으로 이루어진 관습이나 과학적 논리에 의하여 이미 예측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시공간적 차이가 산출해 내는 결과들, 다시 말하면 현재 속에서 배제되거나 부재하는 타자들에 대한 현재의 가능성을 구성하면서 남기는 차이와 지연의 흔적<sup>10)</sup>을 차연(difference)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 차연의 이론은 해체주의를 비롯하여 후기구조주의 이후의 문학에서 일어난 '저자의 부재(death of the author)'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이러한 주제는 이미 주어진 외부환경이나 규율, 규칙에 의한 구성보다는 내적인 자아의 표출, 즉 작가나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을 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피력한다. 외적 환경에 대한 지배를 덜 받는 이와 같은 개념은 텍스트간의 상호의존성이 줄어들며, 텍스트 자체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해체를 비롯한 후기 구조주의 이후의 작업들은 구조주의 사고에서 형성된 일정하고 과학적인 예측보다는 수용자의 조건이나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기대한다. 상호간의 열린 구조가 구성되며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진다.

### 2-4. 키네틱타이포그래피의 시각언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움직임이 더해진 자유로운 타이포그래피의 표현만으로 이해하거나, 비주얼 스토리텔링(visual storytelling)을 위한 표현 방법 또는 표현 도구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각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 자체에 대한 편협한 이해이다. 데리다의 이중적 글쓰기<sup>11)</sup> 개념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적용하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모션(motion)과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라는 이중적인 기표와 기의를 갖게 되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의미전달과 해석이 가능해진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모션은 타이포그래피가 가지는 의미를 부차적으로 설명해주는 2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구조주의의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에 의하면 텍스트는 말하기를 위하여 부가적인 요소로 존재하지만, 후기구조주의 이론은 텍스트와 같이 주변으로 좌천되거나 이전의 해석자들에 의하여 무시되어 왔던 것들이 바로 그 무시하는 이유들 때문에 중요할 수 있다는 보충과 집목의 논리를 가진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변에 놓여있

던 것들이 사실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sup>12)</sup>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모션과 텍스트 역시 이러한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가진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이다.

### 3. 결론

1994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sup>13)</sup>에서 데리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해체는 해체주의 양식이 실제로 표면화되기 전부터 있어왔고, 또 다른 이름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해체주의는 하나의 사실에 대한 분석작업으로 구조주의의 형이상학적인 작업들을 비형이상학적인 사유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특히 데리다의 전통적 서양철학이 지켜왔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차연의 논리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개념은 디자인의 의미전달과 표현방법에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해체주의를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의 시대적인 양식(ism)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재현(representation)과 새로운 시각적 표현의 모색과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이라고 받아들이며,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언어, 의미전달방법 등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반복할 때 동일한 행(行)은 더 이상 정확하게 동일한 행이 아니다. 독창성이 작용한다"<sup>14)</sup>라는 데리다의 모방기술에 대한 연구의 대전제는 반복이 '독창적'이라는 점이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모션이나 타이포그래피 역시 다른 하나를 위한 보충이 아니며 의미의 반복을 위하여 동일하게 모방되는 것 또한 아니다. 각 요소는 독창적인 시각문법을 가지며 이상적인 상호보완관계에서 있는 것이다. 텍스트들간의 분절, 다중 레이어(multi layers)를 사용한 시각이미지의 분할 및 변형, 유희적 접근 등으로 과거 구조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해체주의적 디자인이었다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이슈인 의미와 메시지 전달을 위해 고유의 시각 문법을 가지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Ellen Lupton & Abbott Miller, Design writing research, Phaidon, 1999
-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Cornell Univ. Press, 1982
- Cranbrook Design : new design discourse, Rizzoli, 1990
-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 Jonathan Culler, 이만식 역, 해체비평, 현대미술사, 1998
- Mitchell Stevens, "Jacques Derrida", NewYork Times Magazine, 1994
- Robin Kinross, Modern Typography, Hyphen Press, 1992
- Jonathan Drucker, The Visible Word, Chicago, 1994
- Jacques Derrida, trans. Geoff Bennington & Ian McLeod, The Truth in paint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Philip Meggs, "De-ConstructingTypography", Step-by Step, 1990
-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 & Steven Izenour, Learning from Las Vegas, MIT Press, 1972

12) Jonathan Culler : On Deconstruc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13) Mitchell Stevens: Jacques Derrida,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994

14) Jacques Derrida :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University of Chicago, 1978, p296

10) 김상환: 해체론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p164

11)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